

## 히타치 데이터사업 한국 진출

히타치제작소가 한국의 낮은 투자비용 등 양호한 투자환경과 아시아 지역의 데이터 보관 수요, 그리고 영업거점의 분산 및 사업영속 대책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수요 확대 등을 배경으로 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에 착수

이와 같은 유형의 대한투자 사례는 비제조업분야에서도 한국의 입지 조건과 일본기업의 수요조건이 맞아 떨어짐으로써 이루어진 투자사례로 일본기업 유치에 참고할 만함

### □ 히타치의 2중 백업형 데이터센터

- 히타치제작소는 기업의 정보를 데이터 센터에서 2중으로 백업하는 서비스를 개시. 데이터센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 정규용과 백업용 2개가 동시에 정지된 경우에도 3번째 센터에서 데이터를 보호
- 금년 봄 가나가와현 등 3개 거점에서 시작, 2013년 봄까지 동경 등을 포함한 8개소로 확대할 계획
  - 재해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장애 리스크를 상정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영속대책(BCP: Business Continuity Plan)수요를 확보
- 히타치 자회사인 히타치정보시스템이 데이터센터들을 연결하는 통신회선을 부설. 서버의 증설도 포함한 총 투자액은 약 20억엔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는 일본 내에서도 드문 케이스임
- 기업은 정상 시의 정보시스템거점 외에 백업용으로 제2, 제3의 이용 거점을 정하여 두면, 고객정보 등을 보호할 수 있음

- 히타치는 장애발생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를 대체. 전력회사의 관할지역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여 전력부족에 대비한 사용법이 가능함
- 데이터를 1개소에서 백업하는 경우 비용은 월 10만엔 전후로 서비스 요금은 이보다 더 들어가는데 다수의 고객기업 데이터를 1대의 서버로 처리하는 첨단기술이나 데이터센터의 원격감시 노하우를 살려 가능한 저렴하게 제공

## □ 한국에 진출, 데이터 관리사업 착수

- 히타치제작소가 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에 착수. LG그룹이 서울 시내 등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활용하여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에게 클라우드서비스 외에, 일본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한국에서 백업하는 서비스도 제공
- 동일본대지진 이후 전력부족을 계기로 데이터를 분산, 관리하는 일본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임
- LG그룹은 시스템 구축을 하는 LGCNS가 서울에 2개소, 인천에 1개소를 가지고 있고, 12월에는 부산에도 새로운 센터를 개설
- 히타치는 LG그룹과 1986년에 설립한 정보시스템개발 합작회사, LG히타치(히타치가 51% 보유)을 통하여 일본기업 및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 LGCNS의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했던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센터의 시설 내에서 일본기업의 서버나 스토리지(storage: 외부기억장치)를 보관하는 서비스 외에, 데이터센터에 있는 LGCNS 측의 서버에서 사용했던 클라우드서비스나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

- 데이터센터는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실내 온도를 섭씨 20도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로 인해 전력요금이 운용코스트의 약 30%를 차지하며, 전력공급이 불안정하고 요금도 상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데이터 관리에 불안감을 갖는 고객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히타치는 그룹 내에서 서버나 스토리지의 제조판매나 시스템구축 사업에 특화하고 있어 이를 무기로 공세를 가한다는 것

#### 〈일본기업의 해외 데이터센터 사업 현황〉

|          |   |
|----------|---|
| 후지츠      | 37개 거점. 4월에 중국·광둥성에 시설 개설. 중국 국내에는 최초의 시설               |
| NEC      | 약 10개 거점. 2010년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중국기업과 합작사업                 |
| 히타치제작소   | 2년간 약 20개 거점 예정. 한국, 동남아시아에서 현지기업과 연대                   |
| 소프트뱅크텔레콤 | 2개 거점. 2011년에 한국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 분야에서 제휴, 합작회사 설립         |
| NTT데이터   | 20개 거점 이상. 그룹 내 데이터센터를 활용, 7월부터 동남아시아지역에 대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

자료: 일본경제신문(2012.7.18)

- 히타치의 해외 데이터센터 사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에는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제휴대상을 모색, 2년간 20개소 정도로 늘릴 계획임
  - \* 2015년에 해외 데이터센터사업 분야에서 50억엔의 매출액을 목표

#### □ 한국의 저렴한 전력비용으로 아시아지역의 수요를 흡수

- 히타치제작소가 아시아지역에서의 최초로 데이터센터를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이 저비용을 무기로 아시아지역의 데이터 보관 수요를 활발히 흡수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있음

- 한국은 데이터서비스 관련 인건비나 시설비 등의 면에서는 일본과 차이가 없으나, 전력요금이 일본보다 30~40%저렴
  - 단순 계산하여 총비용은 일본보다 10%정도 저렴하다고 시산하고, 코스트의 절감분은 데이터센터의 이용요금에 반영시킨다는 것
  - 한국은 일본과의 시차가 없고 일본을 연결하는 전용선이 있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리스크 분산책의 일환으로 데이터의 분산관리 수요도 증가하여 코스트 의식이 높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도 데이터센터의 해외이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 한국 IT서비스협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데이터센터 수는 금년 2월에 98개로 2년 전과 비교하여 25개나 증가
  - 국내외를 연결하는 양호한 인터넷 환경, 저렴한 산업용 전력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용 전력요금 할인제도도 있어 지진 이후 한일간 전력코스트 격차가 더 벌어짐
  - IT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인도와 비교하여 한국의 전력사정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보다 기온이 낮아 서버 등의 냉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한국이 큼
  - 여기에 「빅 데이터」 흐름까지 가세,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해석하여 경영·상품 개발, 소비 행동을 분석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 기업이 취급하는 정보량은 크게 늘고 있어 2020년까지 데이터 총량이 현재의 50배에 달할 것이라는 시산결과도 있음. 데이터 량이 많을수록 저비용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이점이 큼
  - 고객정보나 기밀성이 높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경향으로 자국의 데이터센터 사용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나, 보관해야하는 데이터의 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해외비율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 □ 시사점

- 히타치의 한국진출은 비제조업분야에서도 한국의 입지 조건과 일본 기업의 수요 조건이 맞아 떨어짐으로써 이루어진 對韓투자 사례임
  - 한국의 입지 조건은 양호한 인터넷환경과 전력사정 등 비용을 절감할 있는 투자환경임
  - 일본기업의 수요조건은 대지진 이후 재난대책으로서 생산 및 영업거점의 분산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사업영속대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제조업은 물론, 비제조업분야에서도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함

## < 참고자료 >

일본경제신문(2012.7.18)